

# 대학생들의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Media Credi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김연종\*, 안정임\*\*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Yon-Jong Kim(2000yon@dankook.ac.kr)\*, Jung-Im Ahn(jiahn@swu.ac.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신뢰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주목하였다. 미디어 신뢰도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리터러시 역량, 즉 정보 분별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정보 공유 능력 등이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 신뢰도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량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비판적 이해 능력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소유구조, 채현된 현실, 상업적 목적, 정보의 왜곡 등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유한 이용자일수록 미디어 신뢰도가 낮았다. 반면, 정보 자체를 평가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예상 외로 인터넷 신문 외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정보공유능력은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주제 및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미디어 신뢰도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 비판적 이해능력 | 인터넷 기반 미디어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of internet media credibility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who are routine users of internet-based media. Media literacy competences are of primary interest among others in that users' media literacy such as information evaluation,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and information sharing are assumed to be related to media credibility.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nsistently influencing factor. Users with more critical view on media ownership, represented reality, commercial intention of media seemed less likely to trust internet media. Whereas media use motive for information was found to be a strong predicting factor, motive for pleasure showed no relationship with credibility.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for new research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keyword : | Media Credibility | Media Literacy |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 Internet Media |

\* 본 연구는 2018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06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안정임, e-mail : jiahn@swu.ac.kr

## I. 서론: 문제제기

스마트폰과 SNS가 주요정보원으로 활용되면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어떤 미디어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 신뢰도의 근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1].

미디어 신뢰도 평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년 측정되고 공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 신뢰도는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2]. 기술적 미디어 환경은 앞서가고 있지만 미디어의 역할과 위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디어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 신뢰도(media credibility)는 언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영역이다[3][4]. 미디어 신뢰도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시각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산업의 입장에서 특정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얼마나 더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단순통계수치로 비교하거나 수치의 추이분석 등에 집중되어 왔다. 즉 신문, TV 등의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연령대별로 신뢰도의 차이는 있는가 등의 순위비교가 주를 이루었다[5][6].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디어 상황에서는 미디어의 융합 등으로 인해 매체차별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과 탐색이다. 미디어 신뢰

도에서 중요한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해당 미디어를 신뢰하는가?’ 라는 이용자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내적 속성이기 때문이다[7]. 그동안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량, 이용동기 등이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정치적 성향, 타인 신뢰도 등의 요인과 신뢰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기는 했으나[8][9],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또한 연구들 간의 불일치한 측면이나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신뢰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쓰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미디어 이용이 신뢰도를 구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8][10][11]. 그러나 20대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기반 매체나 채널의 이용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거나, 정치적 정보 등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TV 등의 전통 미디어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2]. 즉 이용이 반드시 신뢰도를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은 미디어 이용과 신뢰도 간의 관계가 복잡적이고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중재된다는 의미로 추정해볼 수 있고, 따라서 신뢰도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내적 속성의 영향력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내적 속성 중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용과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신뢰도가 미디어 자체 및 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신뢰도 평가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가짜 정보,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으로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뉴스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분석한 애설리, 웹셀, 윌리스의 실험연구[13]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 인식 중 하나인 미디어의 소유 구조에 대한 지식이 미디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이용자는 낮은 사용자보다 미디어 시스템 전반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확장을 위한 측정문항 구성을 탐구한 김정윤, 성동규[14]는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정보의존도도 높아지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미디어 신뢰도 평가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탐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념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근간으로 하여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가 기본적인 정보 이용행태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20대들의 주된 이용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 그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아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는 하나의 단일 정보원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정보원 혹은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유형의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20대 이용자의 내적 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검토

### 1. 미디어 신뢰도와 영향요인의 탐색

미디어 신뢰도(credibility)는 특정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인지되는지를 의미한다. 박노일, 정지연, 장정현[15]은 언론학 연구에 있어서 미디어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미디어의 기술적 특징 및 이용, 그리고 수용자의 태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학술적 차원에서 미디어 신뢰도 연구의 관심은 주로 정치 및 선거 뉴스 및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가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인식되는가에 모아져 있다.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성이나 공정성 등과 연계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신뢰도 문제는 정확성이나 사실성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서는 뉴스와 정보의 구분도 모호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생활, 연예 등, 내용의 범주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정보소비행태나 인식 역시 분야별 분류기준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과거 TV나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에서 뉴스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혹은 정치면, 사회면 등의 분류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신뢰도는 단지 뉴스나 사실성 정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 혹은 채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미디어 신뢰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될 수 있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탐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현황으로서의 신뢰도 수치조사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자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이용자 속성 변인이 미디어 신뢰도의 예측변인으로 유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동기는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의 목적이 분명한 집단이 관행적인 이용집단보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8]. 미디어 이용량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조사된 요인이기는 하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용과 신뢰도는 무관하게

나[7][12], 이용을 많이 할수록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나 [6] 등으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 등 특정 미디어 장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매체의 편향성에 대한 지각이나 이용자의 이슈편향성 등이 미디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현정의 논문에 따르면, 뉴스 소비자들이 매체가 편향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뉴스 사실이 선택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면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였다[16]. 이용자 개인의 이슈편향성도 미디어 신뢰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김봉덕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가치 인식과 이슈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뉴스의 편향적 지각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9]. 연구자들은 자신의 이슈편향성이 높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해당 매체를 더욱 신뢰하는 결과가 이전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이슈편향성이 뉴스소비를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뉴스라는 특정 정보유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이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로 확대시키기는 어렵다. 뉴스나 정치 정보 등에 대한 신뢰도와 인터넷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인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신뢰도의 연관성

김은미, 양소은[17]은 전통적 의미의 비판적 이해 리터러시를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리터러시라고 명명하면서 무한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는지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의 이해 및 판단능력은 콘텐츠의 수용과 생산의 측면에서도 어떠한 내용의 정보에 반응할 것인지, 어떠한 정보를 상대와 공유할 것인지를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실적 정보와 허위 정보를 분간하는 것이 미디어 정보이용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는 주장이 보편화되면서 정보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정보와 허위 정보를 분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확인 능력은 과거보

다 더욱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18].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의 필터버를 경향에 간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지지하는 뉴스 콘텐츠에 선별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뉴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양정애, 최숙, 김정보[19]는 리터러시 능력을 메시지에 대한 접근, 이해, 분석, 평가능력과 비판적 태도로 메시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능력 및 메시지 생산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라고 정의내린다. 이러한 리터러시 능력을 미디어 신뢰도와 연결시켜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은 이용자는 낮은 이용자에 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맥락적인 가치 평가를 함께 투사해 개별 메시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0].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해왔고 리터러시를 탐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 환경에 따라 이 개념에 포함된 하부요인들의 속성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21][22][27]. 예컨대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해, 생산의 개념으로 세분화한다면, 현재와 같은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이용자의 상호작용 및 참여, 공유의 개념 등에 더 주목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세부적 역량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만큼 미디어의 이용행태가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하여 영향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선별해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역량이다. 비판적 이해 역량은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지원받고, 보호되고, 평가되고, 또 공유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디어와 정보산업의 기능, 역할, 권리, 책임 등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시킬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진실(truth)'이라고 인식하는가의 문제다. 미디어 정보나 뉴

스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용자라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고, 미디어 정보를 재현된 진실(represented truth)이라고 보는 비판적 리터러시 관점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23]. 비판적 이해 능력은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필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22][24]. 졸스와 윌슨은 그동안 미디어 이용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한 도구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시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25].

둘째,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적 리터러시 능력 중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에 대해 의심해보는 등의 능력을 신뢰도 평가와 연계해볼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정보를 검색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원에 대한 평가나 정보의 분별을 통해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에 맞게 활용하며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최근의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9].

셋째, 미디어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소통적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 앞의 비판적 이해나 정보분별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들에 의하면 미디어와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정보의 판별능력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적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미디어 정보평가, 혹은 신뢰도 평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신문 이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 20대 대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연구목적과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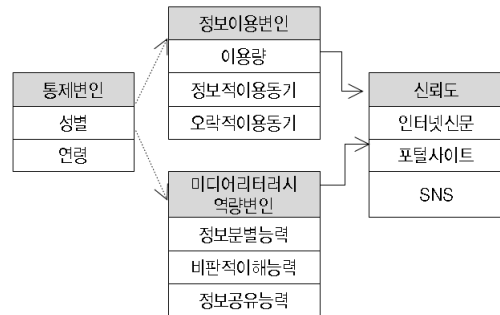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대들의 인터넷 관련 미디어의 신뢰도 평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언론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직접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에 대한 신뢰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그리고 해당 미디어의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 인구학적 속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인터넷 관련 미디어의 신뢰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2. 주요 측정변인

### 2.1 미디어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의 측정방식은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여 매체 간 비교를 하느냐, 혹은 지수형식의 세부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하느냐로 크게 구분된다. 선행연구자들은 두 가지의 측정방식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7][12].

세부항목을 통한 미디어 신뢰도 연구들은 대부분 뉴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뉴스의 정확성, 사실성, 등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뉴스 정보의 신뢰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장정현 등의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선거관련 정보원으로서 매스 미디어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를 믿음성,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 등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12]. 반면 하위개념을 설정한 신뢰도 측정의 경우 하위개념의 정의가 제각각이고 제3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려고 할 때는 각 매체별 차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된다[7].

본 연구에서는 뉴스 등 특정정보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장정욱, 류춘렬의 연구[7]에서 사용된 단일측정항목을 선택하였다. 즉 ‘귀하는 다음 인터넷 미디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2.2 인터넷 미디어 유형

장정현 등[12]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의 유형이 개인적 수준의 홈페이지에서 대안언론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 SNS 사이트 등 종류와 형식이 다양해서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를 일관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 정보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나의 미디어로 전제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정보원의 유형은 인터넷 뉴스, 포털,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 상당히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 신뢰도라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유형을 주된 정보의 특징이나 전달방식의 차이에 따라 크게 인터넷 신문,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 2.3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측정항목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척도를 개발한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1]의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세부척도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인을 활용하고 있지만[27][28],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이해능력, 정보분별능력, 정보공유능력의 3가지 하위 리터러시요인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크론바하 신뢰도계수검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 방식, 회전은 직교회전방식을 택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항목의 요인적재치는 .50 이상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신뢰도 계수 역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척도 타당성및신뢰도 검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비판적 이해 능력	미디어의 타인집단에 대한 편견	.648	4.261
	미디어현실과 실제현실 차이	.547	
	미디어의 정보축소 및 정보생략	.606	
	미디어의 이윤추구 목적	.542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667	
	광고내용의 허구성	.525	
	미디어 소유주에 따른 정보왜곡	.707	

	미디어 종류에 따른 정보의 차이	.664	
	미디어 편집, 배열로 인한 왜곡	.703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정보해석차이	.695	
	특정이용자 대상 미디어 내용구성	.537	
Cronbach's $\alpha = .821$			
정보 공유 능력	나의 글, 의견 인터넷미디어 공유	.801	3,674
	관심글, 의견, 정보 인터넷미디어 공유	.774	
	타인글, 의견, 정보에 댓글의견제시	.613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미디어 공유	.688	
	사진, 동영상 등 지인 공유	.754	
	정보제공 통한 협업, 과제수행	.578	
Cronbach's $\alpha = .857$			
정보 분별 능력	미디어별 정보의 차이 인식	.516	2,293
	미디어별 정보의 비교	.706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	.638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함	.611	
	특정 정보 차단필터를 설치	.545	
	정보에 대해 관련기관에 문의	.533	
Cronbach's $\alpha = .751$			

2.4 인터넷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량

미디어 이용의 목적과 동기, 또는 미디어 의존도 등이 미디어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이용 목적과 이용량의 두 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인터넷 이용목적과 관련하여서는 루빈과 퍼스[29]의 TV 시청 동기 유형(도구적, 관행적)을 원용하여 인터넷의 정보 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오락 및 휴식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질문하였다. 즉 ‘인터넷 신문, 포털, SNS 등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 오락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량은 각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이들 변인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변인별 응답현황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특성과 각 변인별 평균값,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 및 변인별 평균값/표준편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61	49.5%
	여	164	50.3%
학년	1학년	49	15.1%
	2학년	71	21.8%
	3학년	101	31.1%
	4학년	104	32.0%
전공	인문	51	15.7%
	사회	225	69.2%
	자연/공학	49	15.1%
평균연령	23.1세(SD=2.1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이용량	인터넷 신문	3.01	.589
	인터넷 포털	3.89	.631
	SNS	3.92	.522
정보적 이용동기	인터넷 신문	3.63	.926
	인터넷 포털	3.76	.978
	SNS	3.10	1.037
오락적 이용동기	인터넷 신문	2.96	.987
	인터넷 포털	4.00	.844
	SNS	3.98	.949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정보분별능력	3.69	.581
	비판적이해능력	3.99	.474
	정보공유능력	2.70	.933
신뢰도	인터넷 신문	2.85	.807
	인터넷 포털	2.85	.745
	SNS	2.53	.822

2.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관련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각 미디어의 이용량, 이용 동기를, 3단계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3개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예측변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17.7%였으며, 이 중 정보적 동기( $\beta=.366$ )와 정보 분별 능력( $\beta=-.123$ ), 비판적 이해 능력( $\beta=-.120$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신문을 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보는 이용자일수록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특정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용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8][10][11]. 그에 비해 오락적 목적의 이용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정보 분별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정보를 잘 사용할 줄 알고 정보의 분별과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일수록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미디어의 현실재현, 정보왜곡, 이윤추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신뢰도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유와 관련된 리터러시 능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예상으로는 특정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인터넷 신문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eta$	t	p
통제변인	성별	.005	.093	.926
	연령	-.007	-.131	.896
$R^2$		.007		
이용변인	이용량	-.017	-.325	.745
	정보적 동기	.366	6.694	<.001***
	오락적 동기	.089	1.626	.105
$R^2$ change		.158***		
미디어 리터러시변인	정보 분별 능력	-.123	-2.273	.024*
	비판적 이해 능력	-.120	-2.249	.025*
	정보 공유 능력	.068	1.268	.206
$R^2$ change		.038**		
Total $R^2$		.177***		
*p<.05, **p<.01, ***p<.001				

두 번째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표 4],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12.4%였다. 역시 정보 동기가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beta=.325$ ), 미디어 리터러시 변인 중에는 비판적 이해가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사용자들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신뢰도는 정보적 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용량이나 정보 분별능력, 정보 공유능력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분별 리터러시 능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특성이 오락적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이나 보호 등의 리터러시적 역량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동일한 인터넷 기반 미디어이지만 매체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표 4.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eta$	t	p
통제변인	성별	.023	.401	.689
	연령	-.006	-.110	.913
$R^2$		.007		
이용변인	이용량	.000	-.001	1.000
	정보적 동기	.325	5.665	<.001***
	오락적 동기	.088	1.509	.132
$R^2$ change		.120***		
미디어 리터러시변인	정보 분별 능력	-.053	-.942	.347
	비판적 이해 능력	-.119	-2.145	.033*
	정보 공유 능력	-.004	-.076	.939
$R^2$ change		.019**		
Total $R^2$		.124**		
*p<.05, **p<.01, ***p<.001				

셋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31.8%로 다른 두 매체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영향변인 중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적 동기( $\beta=.524$ )가  $p<.001$  수준에서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동기에 의해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그 매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SNS와 같이 가짜 정보나 뉴스의 유통이 다른 인터넷 미디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디어의 경우 이용동기와 신뢰도 간의 인과관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 변인 중에서는 다른 미디어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이해가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09$ ), 정보분별 능력은 경계선상의 유의도를 보여주었다( $p=.056$ ). 미디어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유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 전반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비판적 이해능력이 미디어 신뢰도에 강력한 영향변인임을 증명하였다.

표 5.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beta$	t	p
통제변인	성별	.066	1.325	.186
	연령	.050	.991	.323
$R^2$		.016		
이용변인	이용량	.016	.323	.747
	정보적 동기	.524	9.528	<.001***
	오락적 동기	-.042	-.786	.433
$R^2$ change		.292***		
미디어 리터러시변인	정보 분별 능력	-.095	-1.921	.056
	비판적 이해 능력	-.109	-2.181	.030*
	정보 공유 능력	.078	1.513	.131
$R^2$ change		.028**		
Total $R^2$		.318***		
*p<.05, **p<.01,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 사회관계망(SNS)에 대한 신뢰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주목하였다. 미디어 신뢰도라는 것이 이용자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미디어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리터러시 역량, 즉 정보분별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정보 공유 능력 등이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 신뢰도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정도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비판적 이해 능력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소유구조, 제한된 현실, 상업적 목적, 정보의 왜곡 등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유한 이용자일수록 미디어 신뢰도가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세 가지 인터넷 기반 미디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자체를

평가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예상 외로 인터넷 신문 외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정보공유능력은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자체에 대한 직접적 평가나 분별, 공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거시적 이해, 미디어 속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특정 정보의 판별능력보다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또 하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은 각 미디어에 대한 '정보적' 이용 동기였다. 인터넷 신문, 포털, SNS를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로 이용하는 대학생일수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락적 이용 동기는 미디어 신뢰도에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이용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형성한다고 보다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이용동기에 따라 신뢰하는 미디어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미디어에 대해 동기가 형성되며 다시 해당 미디어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구조가 존재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구조의 선후관계를 살펴볼지 못했지만 향후 신뢰도와 이용동기 간의 상호작용성과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한편 오락적 동기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뢰도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정보 습득 등 도구적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관행적 미디어 이용, 즉 오락이나 휴식을 위한 미디어 이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온갖 유형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하며 이것이 신뢰도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별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SNS 이용에서 정보적 이용 동기가 신뢰도에 가장 큰 수치를

보인 점은 이용자들이 미디어 이용에 대해 상당히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 이용량은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분석된 영향변인이기는 하나 분석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많이 이용할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와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는 이용은 많이 하지만 신뢰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연구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기반 미디어 이용량이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미디어는 늘 이용하고 있는 상시 이용 미디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추측이다. 또 하나는 전체적 이용량에는 정보적, 오락적 이용 동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방향성이 분산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이다. 어떠한 경우든 미디어 이용량과 이용 동기 등 이용관련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신뢰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미디어 신뢰도가 이용자들의 내적 특성 및 의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미디어 신뢰도 개념의 확장이나 현실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신뢰도의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도 인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미디어 산업과 이용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연구들은 미디어 유형들 간의 신뢰도 순위검토나 정치나 선거 등 특정 상황에서의 미디어 신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점차 더 정보의 복잡성과 의존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인식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필수불가결한 능력이 될 전망이다[22][25]. 본 연구는 그러한 추세에서 지금까지 신뢰도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주목하고 이를 의미 있는 영향변인으로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미디어 신뢰도, 정보의 평

가 등은 향후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를 고찰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3가지 종류의 미디어에만 제한한 점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신문, 포털, SNS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미디어라 하더라도 구체적 종류에 따라 신뢰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같은 SNS라 하더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대화기반 서비스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 및 신뢰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세분화된 미디어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내적 속성변인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후연구를 통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측정방식이다. 미디어 신뢰도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측정항목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디어 신뢰도, 정보 판별 등의 개념을 거저에 놓고 이에 적합한 리터러시 측정항목을 세밀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이고 이 중 미디어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측정항목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앞으로 미디어 신뢰도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의표집방식으로 선정한 집단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이기는 하나 언론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나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른 집단 학생들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신뢰도를 결정하는 이용자의 내적 속성변인을 추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층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그럴 경우, 본 연구에서 언론에 관심을 가진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일반 미디어 이용자 집단 전반에 어떻게 일반화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홍숙영, 정의철,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Crisisonomy*, 제13권, 제8호, pp.43-60, 2017.
- [2]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9106.html#csidx25209aac1001ee4a7398192a562684a>
- [3] C. I. Hovland and W. Weiss,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15, No.4, pp.635-650, 1951.
- [4] 박정의,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 신뢰도 분석: 온라인과 전통 매체의 변별 요소-뉴스의 사회성,” *한국방송학보*, 제15권, 제3호, pp.129-154, 2001.
- [5] 송중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pp.180-202, 2007.
- [6] 하승태, 이정교, “미디어 이용량과 선호 콘텐츠 유형이 미디어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1호, pp.413-434, 2011.
- [7] 장정욱, 류춘렬, “현중 수용자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 비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제3호, pp.116-152, 2013.
- [8] 수신, 육건엽, 정용국, “SNS 뉴스 신뢰도 결정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pp.7-30, 2015.
- [9] 김미경, 김봉덕, “뉴스 소비자의 사실 중심 뉴스 가치 인식, 이슈의 중요성 인식, 뉴스의 편향적 시각이 뉴스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343-356, 2018.
- [10] T. Johnson and B. Kaye, “Using is believing: The influence of reliance on the credibility of online political information among politically interested Internet user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7, pp.865-879, 2000.
- [11] M. J. Metzger, A. J. Flanagin, K. Eyal, D. R. Lemus, and R. M. McCann, “Credibility for the 21st century: Integrating perspectives on source, message, and media credibility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In P. J. Kalbfleisch (Ed.), *Communication Yearbook*, Vol.2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2003.
- [12] 장정현, 하주용, 김선호, “정치정보원으로서 인터넷미디어 신뢰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4호, pp.96-128, 2014.
- [13] S. Ashley, M. Poepsel, and E. Willis, “Media literacy and newscredibility: Does knowledge of media ownership increase skepticism in news consumers?,” *J.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2, No.1, pp.37-46, 2010.
- [14] 김정윤, 성동규, “미디어 리터러시의 자본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확장과 측정문항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2권, 제1호, pp.5-32, 2018.
- [15] 박노일, 정지연, 장정현, “고령자 집단의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신뢰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4권, 제1호, pp.314-347, 2017.
- [16] 김현정, “매체 편향성 인식이 신문사설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통해 행동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1호, pp.178-198, 2014.
- [17] 김은미, 양소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1호, pp.305-334, 2013.
- [18] 이재원, 박동숙,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재개념화: 뉴스 큐레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2권, 제2호, pp.171-205, 2016.
- [19] 양정애, 최숙, 김경보, *뉴스리터러시 교육 I: 커리큘럼 및 지원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 [20] 김경모, 이승수, 김상정, “정파적 수용자의 적대적 매체 지각과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2권, 제3호, pp.4-48, 2016.
- [21]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도구 개발 및 성과 측정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13.
- [22] UNESCO,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Country readiness and competencies*. Paris: UNESCO, 2013.
- [23] 변정현,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녀 학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9권, 제3호, pp.419-446, 2013.
- [24] D. Buckingham, “Teaching the creative class? Media education and the media industries in the age of participatory culture,” *J. of Media Practice*, Vol.14, No.1, pp.25-41, 2013.
- [25] T. Jolls and C. Wilson, “The core concepts: Fundamental to media literacy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6, No.2, pp.68-78, 2014.
- [26]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5호, pp.5-49, 2017.
- [27] I. Cortoni, V. LoPresti, and P. Cervelli, “Digital competence assessment: A proposal for operationalizing the critical dimension,” *J.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7, No.1, pp.46-57, 2015.
- [28] E. Schilder, B. Lockee, and P. Saxon, “The challenges of assessing media literacy education,” *J.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8, No.1, pp.32-48, 2015.
- [29] A. Rubin and E. Perse, “Audience selectivity and involvement in newer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Research*, Vol.17, No.5, pp.675-698, 1990.

저 자 소 개

김 연 중(Yon-Jong Kim)

정회원



- 1992년 1월 :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 언론대학원(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관심분야> : 언론학, 휴먼커뮤니케이션

안 정 임(Jung-Im Ahn)

정회원



- 1991년 5월 :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 언론대학원(박사)
- 1998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교육,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